

1997년 말 힝클리 대관장 일정 요약

힝클리 대관장, 멕시코, 벨리즈, 미국의 성도들 방문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방문과 말씀 일정이 꽉 잡힌 가운데 1997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멕시코와 벨리즈의 일곱개 도시에서 교회 회원들을 만났으며, 조지아 주 애틀랜타 성전에서 새로 보수한 침례반을 재헌납했다. 또 대관장은 유타 주립 대학교와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학생들과 모임을 가졌고,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물론 대대 기념 동상을 재 헌납했으며 또한 솔트레이크시티의 150주년 기념 시상식 겸 만찬회에서도 말씀했다.

멕시코시티

힝클리 대관장은 멕시코시티의 대형 체육 센터인 팔라시오 데 로스 데포르테스에서 42,000여 명의 회원이 운집한 가운데 토요일 저녁 모임과 일요일 오전 모임을 갖는 것으로 11월 8일부터 13일까지의 멕시코와 벨리즈 순방을 시작했다. 대관장의 여행에는 부인인 마조리 힝클리 자매와 십이사도 정원회의 엘 톨페리 상로 부처가 동행했다.

힝클리 대관장은 멕시코시티에서 가진 모임에 참석한 회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다. “여러분이 모시고 온 분들에게 관



힝클리 대관장의 말씀을 듣기 위해 멕시코시티에 운집한 수많은 회원들

심을 보임으로써 그 분들의 신앙이 강화되고 여러분 모두가 누리고 계시는 축복을 그 분들도 받기에 합당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고자 저희가 이렇게 여행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에 있는 모든 교회는 여러분이 교회로 인도한 분들을 가르치고 침례 주는 것뿐만 아니라 활동을 지속시키고 강화시키는 모든 위대한 일을 기꺼이 돕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교회 회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과 저는 침례 받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을 안아주고, 그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이 빨리 적응하도록 도와주고, 여러분처럼 굳건하고 유능한 교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큰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멕시코 푸에블라

일요일인 11월 9일 오후에, 힝클리 대관장은 멕시코시티보다 남쪽에 있는 푸에블라로 가서, 12,000여 명의 회원들과 모임을 가졌다. 앞 좌석 쪽에 자리한 복음 선교사들을 향하여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충실한 회원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일은 여러분만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교회 회원들은 힘을 합쳐서 개종자들이 충실하고 굳건한 교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멕시코 오악사카

힝클리 대관장의 다음 행선지는 멕시코 오악사카였다. 그는 11월 10일(월요일)에 약 4천 여 명의 회원들과 모임을 가졌다. 그날 오후에는 톱스클라 구티레즈에서도 모임을 갖게 되어 있었으나, 악천후로 공황이 폐쇄됨에 따라, 대관장은 그곳에서 실망에 빠져 있는 회원들에게 전화로 인사를 전했다.

오악사카에서 가진 모임에서 힝클리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지금 이 아름다운 나라, 멕시코에서는



멕시코 푸에블라에서 힝클리 대관장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12,000여 명의 회원들

사진 촬영: 조영호, 조영호 뉴스 제공



멕시코의 에르네스토 세딜로 대통령, 헝클리 대관장 접견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곳의 국민들이 복음을 받아들인지도 여인 100년이 되었습니다. 회원 수도 적고 힘도 약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의심을 받은 적도 있었고, 정부마저 우리를 배척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당합니다...

참으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세계 1천 만 명이 넘는 성도들로 이루어진 대가족의 일원입니다. 이 멕시코에만도 그러한 대가족의 일원이 8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교회 회원의 거의 10분의 1이 바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막강한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멕시코 비아에르모사

헝클리 대관장은 화요일인 11월 11일에 멕시코의 비아에르모사에 모인 5천 명 이상의 회원들과 모임을 가진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편안한 장소에서 만날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타바스코 주의 주지사와 모임을 가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수 있게 된 것은 그 분의 배려 덕분입니다. 주지사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는 멕시코의 수반이신 에르네스토 세딜로 대통령과 그 분의 관

저에서 매우 흡족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세딜로 대통령과 접견하는 자리에서, 헝클리 대관장은 대통령에게 액자로 만든 가족 선언문과 교회에 관한 책자 한 권을 선물했다. 헝클리 대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딜로 박사께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은 정말로 유능한 분이십니다. 매우 친절하고 관대하며 정중하셨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셨습니다."

헝클리 대관장은 비아에르모사에서 이

렇게 덧붙였다. "우리에게는 현대의 예언자들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도 받아 본 적이 없는 것들을 받고 있습니다. 많이 받으면 그만큼 많은 기대를 받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그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말고는 세상의 어떤 사람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가르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여러분은 내부에 신성을 갖고 있다는 뜻이며, 그 신성을 내부에 갖게 되면 신성에 어울리지 않는 일을 감히 할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멕시코 메리다

헝클리 대관장은 수요일인 11월 12일에 멕시코 메리다의 폴리포럼에서 8천 여명의 회원들과 모임을 가졌다. 그 전에 대관장은 마야 유적지를 방문하였으며, 이에 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곳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하여 거짓된 믿음을 갖고 살았던 백성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벌어진 일을 눈으로 보니 참담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

출처: 조영호, 조영호 뉴스 제공



벨리즈에서 회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헝클리 대관장



멕시코 성도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힝클리 대관장

이 숨져 가는 것을 보면서 외로움과 슬픔에 휩싸여 절규했던 예언자 물몬의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너희 아름다운 백성들아, 어찌 너희가 주의 길을 떠났더냐! 오, 너희 아름다운 백성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들 가운데 서서여 팔을 벌려 너희를 맞으려 하던 예수를 거절하였더냐!...”

“너희가 이 커다란 패망의 날이 이르기 전에 회개하였더라면 얼마나 다행하였으랴만, 보라 너희는 이미 갔고, 영원하신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의 행함을 아시나니,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공의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물몬서 6:17, 22)

“세월이 흐르면서 그 백성들은 잘못된 예배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저는 조상 리하이를 생각했습니다. 사악한 자녀들을 내려다보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비통해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메리다에 있는 동안 신문 기자들

과 기자 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귀 교회와 천주교와의 사이는 어떻습니까?”라는 질문에 힝클리 대관장은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는 천주교뿐만 아니라 개신교를 비롯해 선을 추구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과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과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을 반대한다거나 싸우지도 않습니다. 사이가 좋습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복음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믿는다.”(신약개조 제1조)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의 복음이 가르치는 첫번째 위대한 원리입니다.”

벨리즈 벨리즈시티

목요일인 11월 13일, 힝클리 대관장은 멕시코와 과테말라 사이에 있으며 인구가 약 215,000명 밖에 되지 않는 소국, 벨리즈를 교회 대관장으로서 처음 방문했다. 그곳에서 선교 사업이

시작된 것은 1980년이며, 현재 벨리즈에는 약 2,000명의 회원에 세 개의 지방부와 13개의 지부가 있다. 힝클리 대관장의 벨리즈 순방에는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이며 중미 지역 회장단의 보좌로 봉사하고 있는 홀리오 이 알바라도 장로가 동행했다. 한 대학교 체육관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약 1,200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여 힝클리 대관장의 말씀을 들었다.

힝클리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이 자리에서 계신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 회복된 복음을 통해 여러분의 자녀가 누구인가를 이해하게 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빛과 진리 안에서 그들을 양육하십시오... 이 회복된 복음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관해서도 가르쳐 줍니다. 부부는 동반자로서 나란히 함께 걷는 사이이지, 남편이 앞서 가고 아내가 뒤따라가는 사이가 아닙니다.”

사진 촬영: 조영희, 조지 뉴스 제공



하만 손수건을 흔들며 힝클리 대관장을 송별하는 멕시코시티의 회원들

유타 주립 대학교와 브리감 영 대학교 영적인 모임

10월 21일, 힝클리 대관장은 유타 주 로간의 유타 주립 대학교 체육관에서 말일성도 학생들과 함께 영적인 모임을 가졌다. 대관장은 네 가지 기본 의무, 즉 직업, 가족, 교회 및 자신에 대한 의무에 대해 말씀했다. 대관장은 교회 봉사에 대해 이렇게 말씀했다. “교회를 여러분의 절친한 친구로 삼으십시오. 훌륭한 동반자가 되게 하십시오. 어떤 부름이든지 받아들이고 봉사하십시오. 요청 받은 일을 행하십시오. 모든 직책은 여러분의 능력에 맞게 주어질 것입니다.”

한편 힝클리 대관장은 자신에 대한 의무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했다. “여러분은 주님이 자녀들을 위해 마련해 주신 위대한 행복의 계획에 대해 사색하고 숙고하며, 생각하고 연구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어느 모임에선가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께서 십이사도들에게, 우리가 충분히 사색할 수 있는 시간을 갖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온 마음을 다하여 그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활은 극도로 바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것도 하고 저것

도 하느라 분주히 뛰어다닙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허무한 목표를 생각 없이 쫓아다니느라 자신을 혹사시킵니다. 내부를 성찰해 보고 자아를 계발해 가는 데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11월 4일에는 프로보의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영적인 모임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 모인 약 23,000명의 학생들에게 힝클리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경전의 조직과 그러한 문제에 대한 지식 이상으로 훨씬 많은 것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 걸으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손길을 내밀고 충실하게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사랑과 헌신의 정

신으로 이웃을 위해 봉사하십시오.”

몰몬 대대 기념 동상 재 헌납

힝클리 대관장은 토요일인 11월 1일에 솔트레이크시티의 유타 주 청사 뜰에서 열린 몰몬 대대 기념 동상 재 헌납식에서 이렇게 말씀했다. “우리는 몰몬 대대에 관해 많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다고 해도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제 판단으로는 1856년의 손수레 개척자들 말고는 몰몬 대대 이상으로 고통을 당한 개척자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심한 말 같지만, 저는 분명히 그렇다고 온 마음을 다해 믿습니다.”

이 9미터 짜리 대대원 기념 동상은 원래 1972년에 헌납되었다가 최근에 복원되었다.

힝클리 대관장 1997년도 여행

교회의 대관장으로 지지 받은 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제게 힘이 있는 한 국내외의 백성들에게 찾아가 감사를 표하고 격려해 주며 신앙을 강화시키고 가르치고 그들의 간증에 저의 간증을 더하고 동시에 그들에게

사진 촬영: 조영희, 조지 뉴스 제공



유타 주 청사의 뜰에서 몰몬 대대 기념 동상 재헌납식에서 말하는 힝클리 대관장

서 힘을 끌어 모을 것입니다.... 할 수 있는 한 오래 동안 힘을 다해 일하고 싶습니다.”(성도의 빛, 1996년 7월호, 65쪽)

힝클리 대관장은 1997년에도 3개 대륙에 몇 개의 군도를 여행하면서 바쁜 일정을 보냈다.

1월 — 플로리다 주 잭슨빌, 파나마의 파나마시티, 코스타리카의 산호세, 니카라과의 마나과, 온두라스의 산페드로술라, 엘살바도르의 산살바도르, 과테말라의 과테말라시티

2월 — 캘리포니아 주 팜 스프링스

3월 — 캘리포니아 주 글렌데일, 테네시 주 녹스빌,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

4월 — 일리노이 주 나부, 네브래스카 오마하, 네바다 엘코, 매릴랜드 칼리지파크

5월 — 와이오밍 주 선랜치, 뉴질랜드 해밀턴, 오스트레일리아의 멜버른, 애들레이드, 퍼스, 시드니 및 브리스베인

6월 — 멕시코 콜로니아 후아레스

7월 — 와이오밍 주 심슨 할로우

8월 — 우루과이의 몬테비데오, 파라과이의 아순시온, 에콰도르의 과야킬과 키토, 베네수엘라의 발렌시아

9월 — 콜라라도 주 덴버, 뉴멕시코 주 앨버커키, 애리조나 주 윈도우록과 메사, 와이오밍 주 에반스톤

10월 — 하와이 주 라이에, 사모아의 사바이이와 아피아, 미국령 사모아의 파고파고, 통가의 누쿠알로파와 바바, 피지의 수바, 타히티의 파피테

11월 — 멕시코의 멕시코시티, 푸에블라, 오악사카, 비야에르모사 및 메리다, 벨리즈의 벨리즈시티, 조지아 주의 애틀랜타

12월 — 유타 주 이외의 지역은 방문 없음

지역 훈련 모임의 근본 주제는 가족과 개종자

“우리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남녀간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것이며 가족은 창조주께서 그의 자녀들의 영

원한 운명을 위하여 마련하신 계획의 중심이라는 것을 엄숙하게 선언한다.”(“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성도의 빛, 1996년 6월호, 10, 11쪽)

십이사도 정원회에서는 최근에 실시한 전세계 지역 훈련 모임을 통해 가족의 중요성과 새로운 개종자들이 지속적으로 복음 활동을 열심히 하게 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10월과 11월과 12월 중에 가진 여러 지역 훈련 모임에서, “파송된”(교리와 성약 107:35)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들은 스테이크 부장 2,400명, 선교부장

318명, 성전장 51명, 지방부장 652명 등을 훈련시켰다. 그들은 또한 칠십인 제3, 제4, 제5정원회에 각기 속한 137 명의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들을 위한 정원회 모임과 선교부장 세미나를 개최했다. 십이사도들은 유럽 및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등지의 28개국을 순방했다.

모임에서 그들이 사용한 “교과 과정”은 1995년에 발표된 가족 선언문과 1990년대에 대관장에서 보낸 서한들이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벨라드 장로는 새로운 개종자 모두가 제각기 교회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는 훈련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같이 논평했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의 말씀을 들 어본 사람이라면 그 분이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모든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에 깊은 관심을 보이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벨라드 장로는 그 모임에서 스테이크 부장들과 선교부장들이 서로 더욱 친밀하게 되었고, 스테이크 부장에게 선교 사업과 관련된 보다 많은 책임이 부여되었다고 말했다.

벨라드 장로는 “스테이크 부장들은 개

사진: 윌리엄 J. 피터슨, 대관장



1997년 10월에 태평양 군도를 방문하여 회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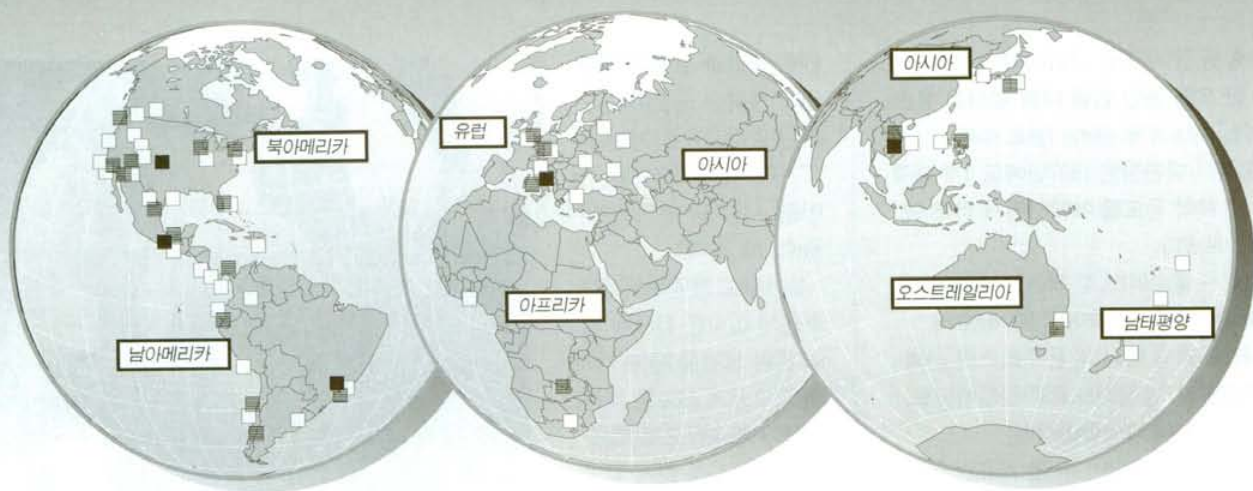
종의 전 과정에서 복음 선교사들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함께 팔을 걷고 함께 일할 것입니다. 아주 잘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계속해서 스테이크 및 와드 평의회가 새로운 개종자를 지속적으로 활동화 시키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모든 개종자들의 지속적인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평의회 회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벨라드 장로는 말했다.

“교회에 온 모든 새로운 자매들이 사랑받고, 책임을 갖고, 자신을 가르쳐 주고 활동적으로 남을 수 있도록 지켜 주는 친구들이 있도록 교회의 상호부조회가 자신들의 소임을 다한다면, 모든 청년들에게 그러한 청년 회장단이 함께 한다면, 청년에게 그러한 청년 회장단이 함께 한다면, 참으로 크게 발달할 것입니다.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 초등학교 조직이 있는 만큼, 초등학교 회장단이 어떠한 아이도 비활동이 되지 않도록 배려한다면 아이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습니다.

“스테이크 및 와드 평의회는 새로운 개종자를 지속적으로 활동하게 하고 활동이 저조한 회원들을 활동화 시키는 데



십이사도 정원회가 전세계의 훈련 모임을 주관함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밸라드 장로는 지역 훈련 모임에서 모두가 메시지들을 열성적으로 받아 들였다고 말했다. “선교부장과 스테이크 부장은 언제나 훌륭한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모든 개종자들에게 친구와 책임이 주어져야 하며, 하나님의 선택된 말씀으로 양육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테이크 부장과 선교부장이 감독과 와드 선교 책임자에게 이것을 가르치며 복음 선교사에게 이것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했으며, 가능한 곳이라면 어디서나 함께 일할 것입니다. 그들은 완전한 조화와 협력 가운데 팀으로 함께 일하여 교회 들어오는 사람이 교회의 모든 축복을 받고 그는 비활동화되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는 이 노력이 성공을 거두리라고 낙관했다. “저는 교회 대관장님이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하셨을 때, 우리가 가서 일하고 우리의 역할을 한다면, 그 결과로 우리는 큰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녀들이 침례 받기를 바라신다는 것은 두 말할 것도 없지만, 그분은 또한 자녀들이 성전의 축복을 받기를 바라시는데, 그것은 그들이 완전한 우정 증진을 통해 지속적으로 활동하게 될 때만 가능한 것

입니다.

지역 훈련 모임은 교회가 훈련을 위해 모든 스테이크 부장을 10월 연차 대회에 오게 하던 것을 1988년에 중단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들은 각 지역마다 그 중심 지역에서 지도자들과 거의 6시간에 걸쳐 “긴급 현안 문제”를 논의하는 모임을 가졌다. 다른 총관리 직원들이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들을 수행하기도 했다.

교회 본부의 지도자들에 따르면, 올해의 주제는 최근 연차 대회 및 기타 모임에서 표명된 헝클리 대관장의 관심 사항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채택되었다.

“올해 이미 배포된 모든 기본 자료들을 모아 최일선에 두고 강조를 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라고 한 지도자가 말했다.

“이번 가을에는 모든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들이 모든 자료를 하나씩 모임에서 한자 한자 꼼꼼히 읽고 참석한 사람들과 함께 그 것들에 대해서 토론하고 모든 사람이 같은 수준에서 이해하도록 도우며 십이사도들이 그랬듯이 지역 차원에서도 같은 단결력을 갖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아칸소 주 포트 스미스 스테이크의 로버트 더블류 포머빌 스테이크 부장은 십

이사도 정원회의 위스린 장로가 가르친 모임에 참석했다.

“우리는 위스린 장로님이 가족 선언문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갖도록 요구하셨으므로 회원들에게 더욱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원들이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등 평의회들 모두가 1998년 1월을 기점으로 해서 6개월 간 이 것을 주제로 말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고등 평의회 모임에서 가족 선언문에 대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등 평의회들은 매일 새로운 자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성찬식의 모든 말씀은 가족 선언문의 아홉 문단 가운데 한 부분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질 것입니다.”

그는 지역 지도자들이 이제 그 메시지를 회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매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가 그 일을 사도들처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아뇨,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머빌 부장은 지난 6년 간 참석한 지역 훈련 모임은 그 모든 것이 마음을 고양했고 “제가 제대로 집중해야 할 부분을 정확히 말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 초점이 때로는 매우 험겨운 것이기도 했

습니다. 무엇인가를 하려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이 훈련은 매우 긍정적인 것입니다.”

뉴질랜드 템플 뷰 스테이크의 앤토니 폴 오스본 스테이크 부장은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인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으로 부터 훈련을 받았다.

“우리는 가족을 개심 시키라는 가르침을 받았다. 우리는 신권 지도자들에게 바로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고 있다.”라고 전화 인터뷰를 통해 말했다.

“우리는 모두 안식일을 보다 잘 사용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과 보다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의 모임 일정을 재조정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훈련 모임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개종자가 지속적으로 활동하게 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 모임에서 스테이크 부장들은 선교부장을 도울 수 있는 권능을 부여받았다는 말씀을 들었다. 스테이크 부장은 지금부터 선교부장에게 자신의 스테이크 내에 지명될 선교사 수와 그 선교사들이 어느 곳에 배치될 것인지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들은, 스테이크 부장단에게 보낸 1997년 6월 13일자 대관장단의 서한에서 승인된 바 있는, 회원-선교사 협의 평의회라는 새로운 평의회의 활동에 대해서도 토론을 했다.

이 평의회는, 지역 회장단의 지시 아래 활동하는, 철십인 지역 관리 역원의 지시를 받아 복합 스테이크 단위로 이루어진다. 지역 내의 선교부장과 스테이크 부장이 이 평의회에 참석한다.

이 평의회는 복음 선교사 및 스테이크 선교사들과 회원 간의 일을 협의·조정하고 그 외 다른 현안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소집된다.

이 평의회의 규모는 지정된 지역의 스테이크 수에 달려 있다. 지역 훈련 모임에서, 지도자들에게 이 위원회에 교육이 있었다. 스테이크 및 와드 평의회 모임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훈련도 이루어졌다.

대관장 및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스테

이크 부장, 선교부장, 지방부장 및 감독에게 보내는 “복음을 선포하는 데 고려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이라는 자료에서 기술된 선교 사업의 기초가 또한 강조되었다.

이 5쪽 분량의 자료에는 개종(개심), 지속적인 활동, 활동 촉진간의 균형된 노력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있다. 선교 사업의 이 세 가지 측면이 모두 균등하게 강조되어야 한다. 이 세 가지 목표는 선교 사업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대관장단이 성찬식에서 읽히게 할 목적으로 “새로운 회원들은 도움”이라는 제목의 공문이 1997년 5월 15일자로 발송된 적이 있었다.

이 서한에는 모든 새로운 회원이 “친구, 책임 및 복음 공부를 통한 영적인 자양분 이 세 가지를 필요로 합니다.”라고 적혀 있다.

“새로운 회원을 돕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각 회원들에게 이 일을 도와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새로운 회원들에게는 여러분의 우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책임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라고 이 대관장단 서한은 말하고 있다.

오스본 부장은 모임에서 지도자들이 복음 선교사 및 개종자를 돕고 개종자의 지속적인 활동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책임에 대한 훈련을 받았다고 말했다.

“우리는 프로그램을 면밀히 검토하여 스테이크 및 와드 평의회가 보다 효과적인 모임이 되며 감독이 보다 긴밀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많은 것을 채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원들에게 자신과 가족의 삶을 정화하도록 격려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들에게 합당하게 되며, 보다 경전을 많이 읽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역 훈련 모임에 참여하는 것은 위대한 특권이라고 말했다. “그러한 권능을 가진 분이 오셔서 우리를 가르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으로 강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처치 뉴스 기사 제공, 1997년 12월 13일자

역원 변경

■ 청주 스테이크

스테이크 부장: 이정은
(전임자: 황충열)
제1보좌: 김동환
제2보좌: 정태걸

■ 안양 스테이크

스테이크 부장: 최윤희
(전임자: 이영환)
제1보좌: 한상익
제2보좌: 박상섭

■ 부산 스테이크

신정 와드 감독: 이수용
(전임자: 손지익)

새로운 조직

■ 대전 스테이크

스테이크 부장: 송윤희
제1보좌: 최상섭
제2보좌: 백두현

조직 변경

■ 천안 지방부→홍성 지방부

지방부장: 정석환
제1보좌: 이명식

■ 천안 지부, 공주 지부, 유성 지부

와드로 승격

■ 광주 스테이크 장성 지부

첨단 지부로 명칭 변경

1998년 전반기 스테이크 대회

지난 2월과 3월에는 전국의 여러곳에서 스테이크 대회와 지방부 대회가 개최되었다. 청주 스테이크와 천안 지방부가 합동으로 가진 대회에서 대전 스테이크가 새롭게 탄생했으며, 청주 스테이크와 홍성 지방부가 재조직되었다. 안양 스테이크에서는 새로운 스테이크 부장이 부름을 받았다.

-편집자-

서울 북 스테이크

지난 2월 14, 15일, 서울 북 스테이크에서는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의 엘 에드워드 브라운 장로의 감리로 전반기 스테이크 대회가 개최되었다.

토요일 모임에서 브라운 장로는 북한의 실정을 상세하게 설명하며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항상 회개하라고 권고했으며, 일요일 모임에서는 어려운 한국의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이 십일조의 법을 잘 지킨다면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실 것이라고 말씀하였다.

강서 스테이크

지난 2월 21, 22일, 강서 스테이크에서는 전반기 스테이크 대회가 김두성 스테이크 부장의 감리로 개최되었다.

이 대회는 토요일에 신권 지도자 모임과 토요일 저녁 모임이 진행되었고, 일요일 총회에서는 스테이크 부장단 제1보좌인 길정권 형제, 전우식 감독, 장순석 감독, 스웨인 서울 서 선교부장과 김두성 스테이크 부장이 말씀을 하였으며, 개봉 와드의 회원들이 아름다운 합창을 준비하여 모임을 더욱 영적으로 승화시켰다.

이번 대회에서는 이성술, 김영권 형제가 대제사로, 김철기, 박현수, 윤현진, 홍갑표, 신창기, 백정환, 진화립 형제가 장로로 지지 받았다. (엄건용)

서울 스테이크

서울 스테이크에서는 지난 2월 28일과 3월 1일, 오희근 스테이크 부장의 감리하에 스테이크 대회가 개최되었다.

일요일 총회에서는 최근에 개종한 삼청 와드의 전태연 형제가 개종하게된 동기와 더불어 고대 언어학자로서 물론경의 번역이 참됨을 부인할 수 없는 과학적인 사실이라는 간증을 전하기도 하였다.

이 대회에서 김성호, 이충권, 이대원, 오형일, 배문철, 이진석, 이수완 형제가 장로로, 장영석 형제가 대제사로 각각 지지 받았다. (최정은)

영동 스테이크

지난 3월 7, 8일, 전반기 영동 스테이크 대회가 서희철 스테이크 부장의 감리로 개최되었다.

이 대회의 일요일 총회에서는 스웨인 선교부장과 가족들이 간증과 더불어 아름다운 가족 합창을 들려주었으며, 뉴욕의 브로드웨이에서 뮤지컬 배우로 활약하고 귀국한 이소정 자매가 특별 간증을 하기도 하였다.

이번 대회에서는 김도균, 정도원형제가 대제사로 김철중, 이광진, 김성근, 신제명 형제가 각각 장로로 지지되었고 김도균, 윤인현 형제가 고등 평의원으로 부름 받았다. (고찬석)

동대문 스테이크

동대문 스테이크 대회가 지난 3월 7, 8일, 조만구 스테이크 부장의 감리로 개최되었다.

토요일 저녁 모임에서는 "효과적인 스테이크 및 와드 평의회의 원리"에 대한 훈련 모임이 진행되었고, 일요일 총회에서 대회 감리자인 조만구 스테이크 부장은 영적으로 무장하고 회원으로서 지켜야 할 법과 도덕에 순종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대회에서 김원백, 최상원, 박경진, 전승철, 노기오 형제가 장로로, 한상운 형제는 대제사로 지지 받았다. (임종숙)

청주 스테이크

지난 3월 7일과 8일, 천안 지방부 회원들이 함께 한 가운데 청주 스테이크 대회가 개최되었다. 북아시아 지역 회장인 렉스 디 피네가 장로의 감리로 진행된 이 대회에서는 청주 스테이크가 분리되어 대전 스테이크를 탄생시켰으며, 천안 지방부의 일부가 청주, 대전 스테이크 산하로 조정되었으며, 홍성 지방부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새로운 역원들이 부름 받았다. (다음 페이지 기사 참조)

이 지역 성도들의 오랜 열원이던 스테이크가 분리 재조직됨으로 인해서 대전과 충청 남북도 지역에는 2개 스테이크와 1개 지방부로 나뉘어 각 지역에서 주님의 사업이 더욱 힘차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배미일)

안양 스테이크

안양 스테이크 대회가 지난 3월 14, 15일,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의 엘 라이오넬 캔드릭 장로의 감리로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이영환 스테이크 부장이 명예롭게 해임되고, 새로운 스테이크 부장에 최윤환 형제, 제1보좌에 한상익 형제, 제2보좌에 박삼섭 형제가 부름 받았으며, 박승모, 한상운, 김금석 형제가 장로 신권을 받았다. 최윤환 부장은 1973년에 침례 받은 후, 와드 청남 회장, 선교부장단 보좌, 감독을 역임했으며, 부름받기 전에는 스테이크 부장단 제2보좌로 봉사하고 있었다. (심상문)

원주 지방부

원주 지방부 대회가 지난 3월 15일, 김종열 장로의 감리로 개최되었다. 이 대회에서 김종열 장로는 "성도의 벼를 통하여 살아 계신 예언자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도록" 권고하였고, 해리스 서울 선교부장은 개종자를 위하여 매월 성도의 벼 20권을 선물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대회에서 지방부장단 제1보좌로 봉사했던 김영균 형제가 명예롭게 해임되었고, 남태영 형제가 장로로 지지 받았다. (허용환)

충청 지역 회원들의 오랜 염원의 성취

청주 스테이크 대회가 렉스 디 피네가 장로의 감리로 지난 3월 7, 8일에 개최되었다. 이 대회는 청주 스테이크와 천안 지방부가 대전 스테이크를 탄생시키는 역사적인 대회였다.

1. 회원들의 오랜 염원의 성취

스테이크 센터가 청주에 있는 관계로 대전 지역의 회원들은 스테이크 모임에 참여하기 위해 청주로 가야 했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대전 지역에 새로운 스테이크가 조직이 되도록 간절한 소망을 가져왔다. 이러한 성도들의 소망은 황충열 스테이크 부장이 부름 받으며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제천 지부가 원주 지방부로부터 청주 스테이크로 귀속되었고, 청주 지역에는 한별 지부와 석교 지부가, 대전 지역에는 유성 지부가 각각 분리, 탄생되었다. 또한 충주의 예성 지부가 예성 와드로 승격되었다. 그리고 성도들은 작년 전반기 스테이크 대회에서 브라운 장로의 스테이크 분리를 위한 제언 프로그램인 가정 복음, 가정의 밤, 가족 기도, 경전 읽기를 열심히 실천하며 준비했다.

2. 역사적인 스테이크 대회를 준비하며

스테이크 대회를 앞두고 3주정도 대대적인 스테이크 센터 건물 보수 공사가 시작되었다. 페인트를 칠하는 등 기술을 요하는 일 외에는 회원들이 직접 참여했다.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낮에, 직장인들은 퇴근한 후에, 학생들은 강의가 없는 시간에 모여서 봉사를 했으며, 제천 지부의 회원들도 하루 동안 시간을 내어 건물 청소를 도왔다. 예배실과 초등협회실의 카페트 청소, 화장실 청소, 유리창 닦기, 지하실 청소, 마당 쓸기 등 회원들은 교회 건물을 청소했다. 이렇게 대회를 가질 장소를 말끔하게 정리함으로써 역사적인 대회를 위한 주님의 종을 맞을 준비를 하였다.

3. 새로운 스테이크가 조직됨

북아시아 지역 회장인 렉스 디 피네가



청주 스테이크 부장단.
앞줄 가운데 앉은 이가 이정은 스테이크 부장.

장로의 감리 하에 진행된 이 대회에서 청주 스테이크와 천안 지방부가 청주 스테이크, 대전 스테이크, 홍성 지방부로 재조직되었다. 청주 스테이크에는 복대 와드, 상당 와드, 예성 와드, 한별 지부, 석교 지부, 제천 지부, 온양 지부와 천안 지부가 천안 와드로 승격하여 4개 와드와 4개 지부가 속하게 되었으며, 대전 스테이크에는 선화 와드, 둔산 와드, 삼성 와드, 논산 지부, 금산 지부와 공주 지부와 유성 지부가 와드로 승격하여 5개 와드와 2개 지부가 속하게 되었고, 홍성 지방부에는 홍성 지부, 대천 지부, 서산 지부 등 3개 지부가 속하게 되었다.

새로 조직된 대전 스테이크 부장에는 송운현 형제가, 청주 스테이크 부장에는 이정은 형제가, 홍성 지방부장에는 정석환 형제가 부름 받고, 지지되었다.

4. 새로 부름 받은 스테이크 부장, 지방부장

■ 이정은(청주 스테이크 부장)

1954년 경남 마산에서 출생했으며, 1969년 4월 8일 마산에서 침례 받았다. 그 후 감독단 보좌와 스테이크 집행 서기, 고등 평의원으로 봉사했으며, 부름 받기 전에는 천안 지방부장으로 봉사하고 있었다. 이정은 스테이크 부장은 현재 독립 기념관 한국 독립 운동사 연구소에서 책임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부인 윤애란 자매와의 사이에 2남 1녀(인규, 가예, 태규)를 두고 있다.

■ 송운현(대전 스테이크 부장)

1948년 충북 보은에서 출생한 송운현 부장은 1973년 대전에서 침례를 받고



홍성 지방부장단.
왼쪽이 정석환 지방부장.

회원이 되었다.

그후 지부장, 감독, 고등 평의원을 역임했으며 부름을 받기 전에는 청주 스테이크 부장단 보좌로 봉사하고 있었다. 현재 충남 대학교에서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부인인 변명자 자매와의 사이에 2남 2녀(재인, 영민, 재격, 재하)를 두고 있다.

■ 정석환(홍성 지방부장)

1956년 충남 당진에서 출생한 정석환 부장은 1972년 인천 지부에서 침례를 받았다. 그후 교회에서 지부 서기, 주일학교 교사, 장로정원회 회장, 감독단 보좌, 지부장, 고등 평의원으로 봉사했으며, 부름 받기 전에는 서산 지부 지부장단의 보좌로 봉사하고 있었다. 정석환 지방부장은 현재 고향인 당진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으며, 부인 임혜자 자매와의 사이에 1남 3녀(진숙, 진아, 재진, 예진)를 두고 있다.



대전 스테이크 부장단.
앞줄 왼쪽에 앉은 이가 송운현 스테이크 부장.



서울 선교부

- 목표: 1) 275명 침례
2) 84%이상 계속 활동

저희들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여러분의 잠재력을 발휘하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찾고, 가르치고, 침례를 줍시다.

서울 선교부장 대릴 더블류 해리스



서울 서 선교부

- 목표: 사람들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인도함
1) 300명 침례
2) 영으로 가르침

저희는 회원들에게 구도자를 가르치는데 도와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십이사도인 해일즈 장로는 토론을 가르칠 만한 가장 적합한 장소는 바로 회원의 가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원들과 함께 모든 토론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서울 서 선교부장 알 스탠리 스웨인



서울 스테이크

- 목표: 1) 회원 선교사업 강화
2) 복음 원리를 생활에 적용시킴
3) 복지 위원회 기능 강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기쁘게 순종함으로써 영적으로나 육체적 물질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서울 스테이크 부장 오희근



동대문 스테이크

- 목표: 스테이크의 영성을 증가시키자

성찬식, 주일학교 등 교회 모임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모든 회원들이 선교사의 영성을 이해하고, 기억하며, 선교사의 일과를 생활에 적용하도록 노력하고, 정기적으로 성전 의식에 참여함으로써 개개인의 영성이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동대문 스테이크 부장 조만규



서울 동 스테이크

- 목표: 선교사업

서울 동 스테이크에는 현재 27명의 스테이크 선교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구도자를 찾기 위해 올 한 해 동안 이웃에게 성도의 빛을 1200부, 물문경을 1200부 이상을 기증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 동 스테이크 부장 최석구



서울 북 스테이크

- 목표: 1) 예언자의 말씀을 따름
2) 가정의 밤을 통해 가족이 하나가 됨
3)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함

새봄의 숨결을 느끼며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손길을 감지합니다.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부름에 감사드립니다. 작은 어린 아이처럼 순결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참 마음으로 따를 때에 성인은 변치 않는 우리의 동반자가 되어 우리를 보호하고 본향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서울 북 스테이크 부장 이준택



영동 스테이크

- 목표: 1) 성찬식 참석률 증가
2) 가정 복음 교육 강화
3) 개종자 증가
4) 침례 후 빠른 시일 내에 아론 신권 및 대신권 부여
5) 성전 참석 증가
6) 세미나리 강화
7) 선교사 배출 증가

고독은 주님과 이웃이 없을 때 생깁니다. 이 추운 시대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주님과 함께 따뜻하게 걸어갑시다.

영동 스테이크 부장 서희철



강서 스테이크

- 목표: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의 가치가 심히 큼을 기억하라
1) 회원 선교 사업에 중점을 둠
2) 침례에서 성전까지 개종자 관리
3) 지도자 육성

전세에서 한때 친구였던 우리의 형제들을 찾기 위해 선교 사업에 매진하는 한 해가 되

기를 소망합니다. 마음과 영이 주린 우리 이웃들에게 따스한 사랑을 전해 주고 생명의 말씀으로 살찌우도록 합시다.

강서 스테이크 부장 김두성



서울 서 스테이크

- 목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함

어떻게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교회에서 맡겨주는 부름에 충실 하므로써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교회의 봉사를 통해 사랑하는 많은 이웃들을 얻었고, 하나님의 큰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서울서 스테이크 부장 이상태



안양 스테이크

- 목표: 가족과 회원간의 사랑을 돈독히 한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 니가야 참세기 49)
1) 효과적인 가정의 밤을 매주 갖는다
2) 새로운 회원의 친구가 되어 끝까지 격려한다
3) 월 2회 이상 성전 의식에 참여한다

예언자들은 우리에게 우리의 아우를 기꺼이 지킬 수 있는 사랑을 가지기를 오래 전부터 가르쳐왔습니다. 이 시기를 통해 더욱 돈독한 사랑의 힘으로 가인의 변명을 우리의 얼굴에서 완전히 떠나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안양 스테이크 부장 최윤환



수원 스테이크

- 목표: 걸음의 폭을 넓히자.
1) 스스로의 폭을 넓히자
2) 선교의 폭을 넓히자
3) 성전의 폭을 넓히자.

“참으로 그 밭이 시온의 땅을 덮고 있어 나의 복음을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의 좋은 것을 상으로 받게 될 것이요, 땅은 힘을 솟아나게 할 것이니라”

(교리와 성약 59:3)

수원 스테이크 부장 이용환



인천 스테이크

목표: 의로운 시온의 스테이크
1) 회원 복지 사업을 준비함
2) 새로운 개종자 및 구도자에게 사랑으로 대함
3) 청소년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짐

저희는 “감독의 창고”를 위한 준비 작업과 회원들의 충분한 금식 기금 헌납 정신을 고취하여 영어회화반에 활동 회원이 가족 단위로 참석하고, 최근 개종한 회원을 잘 준비된 가정에 초대하며, 신권 역원이 철저히 접근토록 하고, 또한 청소년들을 위하여 보이스카웃, 걸스카웃을 창단하고, 세미나를 통해 신앙 생활과 학업의 균형된 발전을 꾀하도록 하며, 그렇게 하여 성찬식 평균 참석수를 97년 513명에서 18% 정도가 증가한 606명이 되도록 모든 역원들이 노력할 것입니다.

인천 스테이크 부장 박동화



대구 스테이크

인간은 누구나 어려울 때 절대자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국가적으로 I.M.F 한파로 어렵지만 오히려 이럴 때 선교 사업에 더욱 관심을 갖고 준비된 구도자를 찾아야 하며 비활동 회원들을 다시금 우리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대구 스테이크 부장 전정신



부산 스테이크

목표: 매일 기도하고 경전을 상고하며 봉사함.

우리의 인생은 오늘의 연속입니다. 오늘 행할 일을 주와 의논할 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읽은 경전의 가르침이 값진 교훈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오늘 만난 사람에게 보이는 작은 친절과 수고로움이 기쁨을 얻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풍요로와 집니다.

부산 스테이크 부장 양기욱



청주 스테이크

우리는 개인적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애녹의 도시 백성들처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의롭게 생활하며, 우리들 가운데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없” (모세서 7:18)에 마침내 “하늘로 들리워” (21절) 갈 수 있는 시온을 이룩해 갈 결심을 합니다.

이를 위해 “주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 선택” (교리와 성약 3:9)된 자들로서 사명과 본분에 충실히 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청주 스테이크 부장 이정은



전주 스테이크

목표: 근면과 충실과 신앙의 기도

올해는 특별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성취를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고, 아침 저녁으로 주님에게 드리는 진지한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권능을 끌어낼 수 있는 신앙을 행사합시다. 한 해 동안 개인의 또는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지 실험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전주 스테이크 부장 이호준



광주 스테이크

1) 모든 회원들은 니파이 이서 31장 20절의 말씀을 주제로 하여 살며 모든

역원들은 교성 81편 5절의 말씀을 주제로 하여 봉사한다

2) 대관장단이 강조한 가족과 개종자에 대해 항상 가르치고 책임을 다한다

3) 스테이크 수첩을 늘 지참하여 교회 목표와 활동을 진척시키고 가족 선언문을 갖고 다니면서 활용하고 안식일 모임을 향상시키기 위해 준비 모임에 참석한다

4) 모든 회원은 성전 추천서를 소유하며 그에 합당하게 생활한다

광주 스테이크 부장 임종하



순천 지방부

목표: 스테이크 2000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거룩한 성약을 맺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 성도에게 큰 기쁨이 함께 할 것입니다.

순천 지방부장 조중현



강릉 지방부

목표: 1) 매일 경전 연구와 기도
2) 신학 연구원 등록
3) 복음 원리를 익히고 실천함
4) 정기적인 성전 방문

강한 신앙을 지닌 형제, 자매들과 함께 서로 도우면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강릉 지방부장 이성진



원주 지방부

목표: 1) 개종자 수 증가
2) 성찬식 참석자 수 증가
3) 가정 복음 교육 증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여호수아 24:15)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오늘날 우리 삶의 중심이 될 신앙의 대상으로 택하고 그분의 사업을 위해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주 지방부장 박수근

부산 서 지방부

목표: 1) 물문경 1일 15분 이상 읽기
2) 가정 복음 30% 증가
3) 침례 수 60% 증가

모든 회원들이 기본적인 계명과 가르침 및 지침에 따라 생활하여 항상 주님의 영광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산 서 지방부장 염효경

신생 스테이크인 대전 스테이크와 조직이 변경된 홍성 지방부는 사정상 목표 및 스테이크/지방부장의 말씀을 수록하지 않습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최종천, 김희진

요즈음 방송가와 신문지상에 자주 등장하는 말
일성도 형제가 있다.

물론 유명 연예인은 아니다. 평범한 한 시민일
뿐. 그러나 평범하면서도 결코 평범치 않은 시민
이다. 한 달에 2 번씩 자신의 피를 나누며 사람
을 실천하는 보통 사람으로는 쉽지 않은 일을 하
기 때문이다. 동 스테이크 장위 지부에 소속되어
있는 서재균 형제를 찾아보았다.

■요즈음 방송과 신문 지상에 많이 등장하신 다는데...

—지난 2월 12일 KBS 제1TV의 아침 마
당에 출연하였고, 3월 8일에 방영된 “세
상 체험 아빠와 함께”에서는 동스테이크
센터와 파고다 공원 등을 배경으로 일부
회원들과 함께 출연하였죠. 4년 전에는
더 바빴어요 UN 가정의 해를 맞아 “좋은
아버지의 모임”에서 수여하는 좋은 아버
지 상을 받은 후 각종 방송국에 불려 갔
었죠. 문화공보부에서는 저의 가족에 대
한 영화를 찍어 대한 뉴스를 만들기도 했
고요.

■헌혈을 통해 이웃에 대한 사랑을 몸소 실천하신 다는데...

—결혼 후 당시 몸이 불편했던 자매가
혹시 큰 수술을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헌
혈 증서를 모아 둔 것이 어느덧 120여장
이 넘었습니다. 그 준비 덕분인지 저의 자
매의 건강은 지금 좋아졌고 대신 지난 해
말 동대문 스테이크의 어느 자매님이 수
술을 받는다가에 그 동안 모아 두었던 100
장을 기증하였습니다. 그 동안 20년이 넘
게 한 달에 2 번씩 헌혈을 하였지만 지혜
의 말씀을 지켜서인지 지금도 건강에
는 자신이 있어요.

■교회 개종 동기와 현재 교회에서 맡으신 직책은...

—1976년, 돌아가신 김산 축복
사님과 어느 사회단체에서 함께
일한 적이 있었어요. 당시 서울
에 스테이크가 한 개 있었는데
면목 지역에 교회를 개설하려고

했나 봐요. 면목 지역에 살고 있는 연고자
를 소개시켜 달라는 선교사의 권유에 김
산 축복사님은 저의 주소를 적어 주셨던
거지요. 당시 저는 장로교회에 다니고 있
었고 의문이 많았으나 6개월 후에야 침
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뒤 면목 와
드 감동으로도 봉사하게 되었고 지금은
동 스테이크 주일학교 회장과 고등평의
원, 장위 지부 주일학교 회장으로 봉사하
고 있습니다.

■회원들에게 전해주시고 싶으신 이 복음에 대한 간증은...

—제가 좋은 아버지 상을 받은 이유는
집에서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노래와 포
크댄스를 추며 ‘가정의 밤’을 가졌다는
사실 때문이죠. 매주 가정의 밤을 갖는 것
이 우리 말일성도들에게는 당연한 일이지
만 세상 사람들은 특별하게 인식합니다.
저는 사회에서 레크레이션 감사로도 일을
했는데 다 그것도 독신 성인때 교회에서
배운 것이죠. 우리 교회의 회원들이 맑은
바 부름과 직분에 충실하고 교회의 가르
침에 잘 따르다 보면 사회에서 크게 인정
받게 됩니다. 저는 이 교회의 가르침이 참
으로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에게 주시고 싶은 가르침이 있다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
나 그것은 말로써 가르
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모범
을 통해 가르쳐

야 하는 것입니다. 놀이터에 가서 그 곳
에 떨어져 있는 휴지나 유리 조각을 주우
면 그것을 자녀가 보고 배우게 됩니다.
전 퇴근하면서 시간 있을 때 아무 전철역
에나 내려 놀이터에 가서 유리 조각을 줍
습니다. 그 곳에서 노는 아이들이 내 자
녀라 생각하면 다 가능한 일이죠.

■앞으로 이루시고자 하시는 소망이 있다면...

—선교사업입니다. 저는 독신 성인때 내
가 좋은 일을 해서 방송에 나가 비회원들
에게 감동을 줌으로써 선교사업을 해보
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것이 이루
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이 복음을 알지 못
하는 많은 사람들, 특히 이 사회의 지도
층에 있는 유명 정치인이나 경제인들에
게 이 복음을 소개하고 침례를 주고 싶습
니다. 또 말일성도 헌혈 봉사회와 한국
말일성도 경영자 협회를 조직하고 싶습
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의 바라고
(전화 720-0175), 안과 관련 무료 수술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연락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대화를 나누는 중에도 적십자사 헌혈 봉
사 모임에서 오후 약속을 확인하는 전화가 오는
등 일정이 바빴을 알 수 있었다. 요즈음은 다른
교회에서도 봉사에 관한 말씀 초청이 들어온다
면서 환하게 웃는 서형제 곁을 떠나면서 내 이웃
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어렵지만 너무
중요하고도 뜻깊은 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질문: 어떻게 하면 경전을 효과적으로 읽을 수 있을까요?

경전을 효과적으로 읽는 방법

1. 경전을 읽기 전에 항상 기도한다.
2. 필기구와 노트를 항상 옆에 준비해 둔다.
3. 천천히 계속한다.—이 연구는 달리가 아닙니다. 한 장이나 한 구절을 가지고도 며칠을 보낼 수 있습니다.
4. 경전을 읽는 동안 질문한다.
5. 하루 중에도 여러 차례 하던 일을 멈추고 깊이 생각한다.

(대회 보고, 1971년, 10월, 6쪽)

독자의 의견

저는 선교사업에서 귀환한 후 지금까지 저의 일상 생활 중 변하지 않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물문경을 반드시 상고하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에게 기도와 함께 매일 주님의 영을 느낄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경전을 읽는 저의 원칙은 이렇습니다. (1) 일정한 시간(아침이나 점심 시간이나 자기에게 편리한 어느 특정 시간)을 정합니다. (2) 정 시간이 없다면 한 구절을 읽더라도 매일 읽습니다. (3)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며 중요한 구절에 색철을 하거나 노트에 기록합니다. (4) 그 날 읽은 구절을 자신의 생활에 잘 적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동대문 스테이크 / 이문 자부
문근혜 자매

저는 영어로 된 물문경 읽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사전을 찾지 않고 읽는 것이 조금 힘들었지만 내용을 거의 다 알고 있고 매일 한 두 페이지씩 읽고 나니 몇 달 후에는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경전을 새로운 각도에서 이해하게 되고 한국어로 된 물문경을 읽을 때와

다른 특별한 느낌들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의 권고대로 “어떤 언어를 배우길 원한다면 그 언어로 된 물문경을 매일 읽는다면 우리는 방언의 은사를 얻을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에 대해 저는 강한 간증을 갖고 있습니다. 영어를 공부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일석이조가 될 것입니다.

동대문 스테이크 / 장안 와드
손기준 형제

저의 경험 중 하나는 역사적 배경을 먼저 이해하면, 경전의 내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며 앞뒤의 전달 내용을 보다 분명히 연결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신학연구원 학생 교재를 많이 참고하는데, 이곳에는 신권 지도자들의 간증과 고고학적인 사실까지 함축되어 있어 읽기를 같이 병행하다보면 경전에 대한 지식과 간증을 함께 얻을 수 있는 장점 또한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강서 스테이크 / 신길 와드
고선 자매

저는 경전을 읽을 때 경전의 구절을 손으로 써 내려가며 읽곤 합니다. (이 방법은 제가 어떤 자매님에게서 들어 알게 되었는데, 그 자매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방법은 아니지만, 뭔가를 암기하거나 깊이 생각해 보려 할 때는 써 내려가며 읽는 것이 한 방법이고, 그럼으로써 한 구절 한 구절의 숨은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해보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 북 스테이크 / 원당 와드
박소연 자매

어떻게 하면 경전을 효과적으로 읽을 수 있을까에 대해 각자 나름대로의 방법들이 있겠으나 전업주부인 제 경우에는

시간의 여유가 조금 있기 때문에 주로 오전 중에 해야 할 집안 일을 마무리 짓고 오전 11시부터 점심 먹을 때까지의 시간을 많이 활용하고 또 세탁물이 많아 세탁기를 사용하는 시간도 책보는 시간으로 이용하곤 합니다.

경전을 읽은 다음에 다른 서적을 보는데 아무런 목적 없이 읽는다면 곧 바로 싫증이 나기 때문에 목표를 설정하여 언제까지 물문경을 다 읽겠다, 하루에 몇 페이지씩 아니면 몇 장을 읽겠다고 정해 놓고 경전을 읽기 전에 주님과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분량을 다 읽겠다는 약속을 맺고 자신과도 약속을 맺어서 꼭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제 경우 작년에 4대 경전 모두를 읽었다고 주님과 약속했으며 시작하는 날과 끝나는 날을 경전마다 기록하였고 그 날짜를 앞당기고 싶은 욕심으로 가속이 붙어서 나중에는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빨리 읽을 수가 있었으며 그 성취감은 너무나 큰 기쁨이었습니다.

순천 지방부 / 순천 자부
이현아

물론광장(Mormon Forum) 안내

물론광장에서는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래에 제시된 주제에 맞춰 독자들이 가진 좋은 경험이나 방법을 적어 개인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시 원고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보내실 때는 서울시 성동 우체국 사서함 22호 (133-600)로 보내시거나 해당 스테이크/지방부의 성도의 벗 기사 담당 공보 전문 위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월—우리는 늦은 습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6월—제한된 예산으로 어떻게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가?

7월—어린이들을 어떻게 성찬식에서 경건하게 하도록 할 수 있는가?

서울 지역 신권 역원 부부를 위한 특별 모임



지난 3월 13일 저녁은 서울 지역의 신권 역원 부부에게는 매우 특별하고 의미 있는 날이었다.

한국에서는 이례적으로 북아시아 지역 회장인 텍스디 피네가 장로 부부, 제1보좌인 엘 라이오넬 캔들릭 장로 부부, 제2보좌인 엘 에드워드 브라운 장로 부부가 모두 참여한 가운데,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인 고원용 장로와 김종열 장로 부부, 각 스테이크 부장 부부와 선교부장 부부, 교회 교육 기구 대표 부부, 선교사 훈련원 원장 부부, 용산 지방부장 부부가 초청된 가운데 서울 성전 주관으로,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부부의 간증과 더불어 성전의식을 함께 받는 모임이 있었기 때문이다.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과 더불어 서울 지역 신권지도자들이 직접 성전에서 의식을 집행함으로써 단합과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는 기회를 통해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에 더욱 충실히 수행할 것을 하나님께 약속하는 뜻있는 모임이 되었다.

이에 앞서 가진 간증 모임에서 피네가 장로는 모든 회원들이 성전에 초점을 맞추어 생활할 것과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나가도록 신권 지도자들이 인도하라는 권고의 말씀을 하였다. (김영환)

서울 동, 서, 중부 신학 연구원

세미나리 교사 훈련 모임

지난 2월 7일 서울 동 신학 연구원에서 는 교회 교육 기구 박병규 대표와 90명의



세미나리 교사가 참여한 가운데 새학기 준비를 위한 훈련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에서는 이재훈 형제와 길정권 형제, 정태걸 형제의 훈련에 이어, 면목와드 배영철 감독과 조남준 형제가 간증을 전했다. 또한 박병규 대표는 말씀을 통하여 확고한 교리를 경전 그대로 가르치고 학생과 교사가 경전으로 돌아가도록 당부하였다.

참석한 교사들은 이 모임을 통하여 신앙과 간증으로 한결같이 고조되고 주님께서 친히 쓰시는 도구가 되겠다는 각오와 소망을 굳게 다졌다.

(최동일)

서울 동 스테이크

스테이크 선교사 훈련 모임



서울 동 스테이크(스테이크 부장:최석구 형제)는 올해의 목표를 선교 사업에 역점을 두기로 하고, 특히 회원 선교 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실시하고 있는 바, 서울 동 스테이크 선교부(선교부장: 반상호 형제)에서는 지난 2월 18일에서 22일까지 5일간 스테이크 선교사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 훈련 모임은 스테이크 내 23명의 스

테이크 선교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실시되었고, 모든 스테이크 선교사들은 복음을 가르칠 사람을 찾고 새로운 회원과의 우정 증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선교 사업에 있어서 스테이크 선교사의 역할을 충실하게 준행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

강서 스테이크

진학·진로에 관한 노년의 모임

지난 2월 8일 강서 스테이크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진학·진로에 관한 노년의 모임'이 있었다. 스테이크 부장단 제2보좌인 이광준 형제의 감리로 진행된 이 모임은 진학 및 진로 상담을 위한 것으로 화곡 와드의 이성대 형제가 연사로써 말씀을 하였다.

작년까지 국립 맹인 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할 때 청소년 상담을 주로 한 이성대 형제는 청소년의 갈등과 그 원인 및 부작용, 그리고 해결 방법을 구체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전해주었다.

이성대 형제의 말씀이 끝난 후에는 부친 와드 청소년들이 준비한 특별 찬송 '너의 쓴잔을'을 듣고, 이광준 형제의 정리 말씀으로 모임을 마쳤다.

(엄건용, 최유진)

수원 스테이크

제 2회 열매제



수원 스테이크에서는 2월 28일 "열매제"가 열렸다.

100여 명의 청소년과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전하는 충실한 청소년의 모습을 격려하는 이용환 스테이크 부장의 말씀으로 모임이 시작되어 청소년 시절을 만족스럽게 마무리하는 고3 형제들의 복음에 대한 감사의 간증이 있었다.

또한 와드/지부의 청소년들이 준비한 재능을 발표할 때에는 청소년의 흠없는 순결과 씩씩한 희망이 회원들 가슴에 전해졌으며 교회의 밝은 미래를 스케치 해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여운을 남겼다. 개 개인의 작품 전시회를 겸하여 더욱 알찬 열매를 거두는 시간이 되었다. (최미경)

서울 서 신학 연구원

중등부 신약 경전 경시 대회

지난 2월 14일 서울 서 신학 연구원에서는 중등부 신약 경전 퀴즈 대회가 있었다. 서 신학 연구원 산하의 6개 스테이크가 참여한 이 대회에는 이미 각 스테이크에서 예선을 통해 선발된 2명의 대표가 참여하여 모두 12명의 형제 자매들이 실력을 겨루었다.

이 대회에서는 안양 스테이크의 강혜선 자매와 편지영 자매가 영예의 1위를 차지하였으며, 2위는 서울 북 스테이크의 정정환 형제와 이자영 자매가, 3위는 수원 스테이크의 김동수 형제와 장한나 자매가 차지하였다.

청주 스테이크

세미나리 축제



청주 스테이크의 세미나리 축제가 2월

21일 스테이크 센터에서 열렸다.

이 모임의 1부 경시 대회에서는 예성 와드의 이재숙 자매와 안진숙 자매가 영예의 1위를 차지했으며, 2부에서는 선정된 주제로 심포지엄이 진행되었다. 이어서 진행된 졸업식에서는 석교 지부의 조동희 형제와 공주 지부의 이미우 자매, 예성 와드의 이재숙 자매, 안완수 형제와 선화 와드의 김옥현 형제, 석교 지부의 박영옥 자매, 복대 와드의 이순양 자매가 졸업을 하게 되는 기쁨을 누렸다.

(배미일)

부산 신학 연구원

졸업식



지난 3월 7일 5시부터 부산 신학 연구원에서는 졸업식이 있었다.

부산 스테이크와 부산 서 지방부의 졸업생들이 함께한 이 모임에서는 졸업장 수여식과 신학 연구원 졸업 후 소정의 과정을 한번 더 이수한 학생에게 주어지는 특별 달성 증서 수여식이 있었으며 이어서 민혜기 원장과 양기욱 부산 스테이크 부장의 축사와 격려의 말씀이 있었다.

이번 졸업식에서는 부산 스테이크 수정 와드의 정미순 자매 외에 16명과 부산 서 지방부 영도 와드의 박미영 자매와 2명이 졸업장을 받았으며, 특별 달성 증서는 부산 스테이크 이미숙 자매, 양기욱 형제, 김성숙 자매, 김진경 자매, 부산 서 지방부 정영백 형제가 받았다.

(이희숙)

대구 스테이크

신학 연구원 졸업식 및 개강식



지난 3월 5일 대구 스테이크에서는 정정신 스테이크 부장의 감리 하에, 민혜기 부산 신학연구원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명와드에서 98년도 신학 연구원 졸업식 및 개강식을 가졌다.

5개 지역의 74명이 참석한 이 모임은 1부 졸업식에 이어 2부에서는 개강식과 더불어 신입생 환영회가 곁들여졌다.

올해는 수정 와드의 유병주 형제, 중리 와드의 권경희 자매, 대명 와드의 송정님, 차정아 자매, 경산 지부의 이호환 형제가 졸업장을 받았고, 대명 와드의 정영미 자매가 특별 졸업장을 받았다. (곽수형)

광주 스테이크

고교 졸업자와 신권 지도자의 데이트

지난 2월 14일 광주 스테이크에서는 이 지역의 고교 졸업자 14명과 감독단, 고등 평의원, 스테이크 부장단으로 구성된 신권 지도자 14명과 1:1 데이트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에서 신권 지도자들은 자신의 파트너를 위해 인생과 진로 상담 뿐 아니라 멋진 저녁 식사와 즐거운 활동, 그리고 신권 축복 등을 각자가 계획하여 신입 독신성인들이 교회 안에서 활동적이 되고 더욱 강한 영성과 간증을 가지고 더 많아질 책임을 수행하도록 도움을 주었다.

고3 동안 활동이 저조했던 한 자매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신권 지도자를 만나게 해 주셨고 그 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다고 하였으며 영적으로 더 성숙해 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박유미)



권희영

부산 스테이크
해운대 와드
서울서 선교부



김옥인

서울 북 스테이크
모래내 지부
대전 선교부



김정희

청주 스테이크
한밭 지부
서울 선교부



박광선

서울 스테이크
화양 와드
대전 선교부



신윤희

부산 스테이크
온천 와드
서울서 선교부



이현정

대구 스테이크
수성 와드
서울서 선교부



황현경

안양 스테이크
안산 와드
대전 선교부



김잔디

전주 스테이크
남원 지부
하와이 호놀룰루



배숙자

Billings mt. East 스테이크
Billings 7th 와드
서울 성전



김성인

서울 북 스테이크
모래내 지부
부산 선교부



김용기

수원 스테이크
율전 와드
부산 선교부



민순녕

부산 스테이크
신정 와드
서울 선교부



박옥진

광주 스테이크
풍향 와드
서울 선교부



염진희

서울 동 스테이크
의정부 지부
대전 선교부



최종호

대구 스테이크
상주 지부
서울서 선교부



구소형

영동 스테이크
분당 와드
유타 템플 스퀘어



지은숙

청주 스테이크
제천 지부
유타 템플 스퀘어

교회 출판물 안내

· 연차 대회 오디오 테이프

1998년 4월 연차 대회의 말씀이 녹음되어 있는 영어 오디오 테이프를 다음과 같이 판매 예정입니다.

판매 가격: 13,000원

판매 방법: 1998년 4월 15일까지 관리본부에 신청서와 대금이 도착하는 것에 한하여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일부 수량이 교회 출판물 전시 판매장(Book Center)에서도 판매될 예정입니다. 적은 수량만 수입될 예정이므로 가급적 우편으로 위의 기한내에 주문할 것을 권장한다.

판매 가능 시기: 1998년 4월 말

·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토론 2 비디오 테이프

선교사 복음 토론 중 두 번째 토론에 관한 내용을 담은 비디오로서 다음의 목적을 위해 회원과 선교사들이 사용한다.

- 구도자들이 발전하여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
- 최근 개종자들과 함께 복음의 기본 원리를 살펴봄
- 복음 원리반 공과를 보충함
- 구도자를 위한 노년의 모임에 사용함

판매 가격: 4,000원



생활 속의 지혜

요즘 IMF시대 속에서 우리 가정의 경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달걀 껍질은 표백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흰색 옷을 삶을 때 세제 대신으로 달걀 껍질을 넣어서 삶으면 더욱 하얗게 옷을 세탁할 수 있고 자연도 손상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